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와 업무 제휴

— 필리핀 교통카드, 통합지휘무선망 사업 공동 참여 —



경찰공제회(이사장 강영규)가 최근 군인공제회(이사장 조영호)와 상호간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공제회는 해외 사업 분야인 필리핀 교통카드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신개념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한 軍·警 상호 회 사업, 그리고 국제사업인 통합지휘무선 통신망(TRS)사업 등에서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兩 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모델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방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동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 회원인 군인과 경찰의 복지 업무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최초 해외투자 사업인 필리핀 교통카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지 공동 실사를 하는 등 다각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경찰공제회 강영규 이사장은 『이번 협

정은 공제회간 최초의 교류협력 체계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는 물론 회원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조영호 이사장은 『국가 안

보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양 공제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회원 복지증진과 공동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國科搜, 창립 52주년

- 과학수사 요람으로 입지 굳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최근 개소 52주년을 맞았다.

지난 55년 3월 25일 개소한 이래 과학수사의 요람으로 성장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해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국과수는 지난 해 총 21만1천934건의

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 2월 현재 총 5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했다.

뿐만아니라 세계 최초 현장용 유해화학물질검출 간이 키트 개발과 유리 동일성 판별법, 폭발물의 생산지 판별법, 신원확인용 DNA분석기반기술, 디지털 정보 획득 기반기술, 미세생체신호 및 단서 행동 측정 시스템, 나노 및 특수분석기법을 이용한 미세증거물의 실시간 검색기술 등 선진 감정기법 연구 개발은 물론 외국 법과학자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학 등과의 관학 협력을 통한 기술교류와 18회에 걸쳐 268명의 경찰과학수사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DNA 감정지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업무효율화에 노력한 가운데 특히,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수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렸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사인을 규명하고 범외사실을 입증하는 등 증거위주의 과학적 수사활동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긴급감정팀을 구성하여 대형 재난 사고 등 국가적 중요사건 발생시 신속 정확한 감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고, 감정고충처리팀을 구성하여 수사관의 감정처리에 대한 문의 고충 등을 상담함으로써 감정인이 감정 업무에만 집중토록 함으로써 감정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국과수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검 진행상황을 PDP화면으로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06년 12월 실시한 정부혁신지수(GII) 진단에서 혁신추진기인 3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금년도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2년차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감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법의부검, 警·官·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법의관 부족에 따른 부검감정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법의부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시설물 리모델링 및 부검실 현대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法과正義가 살아있는社會 만들고 싶어

- 박봉태 前 해경청장의 큰딸 효연嬢 司試 합격 -



효연양은 지난해 치러진 제 48회 사법시험에 서울대학 법대 4학년 재학생 신분으로 도전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좀 더 나은 여학 실력을 갖추기 위해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는 것을 1년 연기하고 현재 중국에 여학 연수중이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효연양은 오는 7월까지의 여학연수를 마치고, 사법 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판사 혹은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큰딸의 사법시험 합격에 대해 박봉태 前 청장은 『효연이가 큰 뜻을 가지고 학교 부근 신림동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했고, 집사람도 매일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봉태 前 해양경찰청장의 큰 딸 효연양(25세)이 지난해 11월 사법시험 3차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재학시절 쌓아온 法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 도전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효연양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새삼 자신의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쑥스럽다는 표정이다.

소수웅 군산 부회장 철탐산업훈장 受賞

- 근해 안강망수협조합 경영 정상화 功勞 -



근해 안강망수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소수웅 군산경우회 부회장은 무려 235여원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적자점포 등 무수익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상호금융점포 10개소와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부산지부를 폐쇄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관리비도 지난 2001년 126억원에서 2006년 61억으로 49%를 획기적으로 절감했으며, 2001년 196명이던 직원은 2006년 110명으로 운영한 결과 전체 회원조합 중 상호금융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최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방호 국회의원과 수협 전·현직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수협 창립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부로부터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날 소 조합장은 퇴출위기의 근해안강망 수산업 협동조합을 건전조합으로 회생시키고, 경영정상화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영광을 안았다.

소 조합장은 퇴출위기 조합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지난 2002년 취임 당시 순자본 비율 -40.5%의 부실조합을 지난 2006년 -12.7%로 개선함으로써 건전조합 진입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예탁금은 2002년 2,780억에서 2006년 5,200억으로, 대출금은 2002년 1,012억이던 것을 2006년 4,159억으로 신장시켰을 뿐만아니라 불건전 채권비율도 2002년 3.53%에서 2006년 0.88%로 개선함으로써 당기순 이익은 4년간

특히, 자금운용규모는 7,549억원으로 168% 성장시켰고, 예·대마진율은 77.6% 순증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정부정책 참여로 근해안강망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

한편, 이외에도 소 부회장은 지난 2000년 군산 수산인협회장 재임시절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어선감축시 제도적인 역할로 안강망어업인의 집단 시위 근절, 수산자원보호령개정시 해파리 배출물 활용을 반영해 안강망어업인의 숙원사업 해결, 어업인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와의 공익적 역할에도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해난 유자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여해 왔다.

소 부회장은 『현직 퇴직이후 수협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이번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제책으로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홍일 중앙회장 전남 화순 경우회 방문



구홍일 중앙회장은 지난 4월 6일 전국 각급회 방문의 일환으로 전남 화순 경우회와 화순 경찰서를 방문하고 경우회 발전 및 치안업무 수행에 고생하는 전 현직 경우회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생활법률

아파트 부녀회의 성격은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실체로 본다

대판 2006. 12. 21 선고 2006다 52723판결(관리와 수입금)

김 진 (경우회 재정처장)

【판결요지】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

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참조문】

- 민법 제 275조(物件의 總有) ① 법인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집합체로서 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 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 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國民 편의 위한 수사권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경·검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를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9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警·檢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警·檢간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회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